

# 전남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3년 연속 전국 1위

### 전국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49만t 중 전남 24.7%인 12만t 생산 22개 시·군 출하량 1위 영암... 지난해보다 6465t 오른 1만7600t 전남 친환경 농가 2만7354가구 최다... 곡성 2034가구 전국 최다

전남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출하량이 3년 연속 12만t을 넘기며 전국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2개 시·군 가운데 영암이 1만7600t을 생산하며 출하량이 가장 많았다. 30일 통계청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출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출하량은 12만2207t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국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은 49만여 t으로, 전남은 전체의 4분의 1(24.7%) 가량을 차지했다. 전남 출하량은 지난 2017년(12만5793t), 2018년(12만3008t), 2019년(12만2207t) 등 매년 12만

t 이상을 생산하며 전국 최고 출하량을 기록했다. 통계를 낸 지난 2014년에는 경북이 전체의 27.7% 비중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출하량 1위를 나타냈고, 지난 2016년에는 경기도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2017년부터는 전남이 출하량 1위를 지켜왔다. 지난 2019년 전남 친환경 인증 농가는 2만7354가구로, 전년보다 3.6%(948가구) 증가했다. 전남에는 친환경 농가가 전체(5만8055가구)의 절반 가까이(47.1%) 분포돼있다. 전남 친환경 농가는 2017년 2만6113가구, 2018년 2만6406가

구, 2019년 2만7354가구 등 2년 연속 늘고 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6가구 줄어든 충북을 포함해 전북(-120가구), 경북(-119가구), 인천(-55가구), 강원(-44가구) 등 5개 도(道) 친환경 농가 수는 전년보다 줄어 들었다. 친환경 인증 2034가구를 보유한 곡성은 전남 22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친환경 농가가 가장 많다. 전국 28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9위가 전남에 분포해있다. 22개 시·군을 두고 비교하면 곡성에 이어 장흥(1977가구), 신안(1930가구), 영암(1843가구), 화순(1755가구), 해남(1742가구), 광양(1586가구), 순천(1456가구), 진도(1454가구), 담양(1339가구), 영광(1318가구), 함평(1280가구), 여수(1033가구), 고흥(1015가구), 무안(935가구), 구례(915가구), 강진(832가구), 완도

(831가구), 보성(804가구), 나주(781가구), 장성(478가구), 목포(16가구) 순으로 많았다. 친환경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곡성이었지만, 전국에서 1년 새 친환경 신규 인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해남(292가구)이었다. 전남 시·군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년보다 6465t(58.1%)이 증가한 영암으로, 지난해 생산량은 1만7600t에 달했다. 전남 출하량 1위는 2014-2015년 나주가 차지하다, 2016-2018년 3년 연속 해남이 꺾었다. 이후 2019년 영암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1-2위 자리는 경북 청도군(2만775t)과 제주 서귀포시(1만7786t)에 내줬다. 22개 시·군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이 가장 적은 곳은 목포(243t)이었지만, 이곳 출하량은 전년보다 224.9%(168t)나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6월4일은 '육포데이'

농협 전남본부, 한우·한돈 소비 독려  
"6월4일은 한우·한돈 먹는 '육포데이'입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장흥축산농협은 10번째 '육포데이'를 앞두고 지난 29일 장흥 토요시장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육포데이 행복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숫자 6과 4의 영어 발음을 활용해, 국산 한우와 한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육포데이'를 만들어 행사를 열었다. 장흥축협은 이날 100% 한우·한돈으로 만든 육포를 시장 방문객에게 나눠주고, 경품 행사도 진행했다. 축산물은 최대 20% 할인 판매하기도 했다. 농협 관계자는 "육포데이 행사는 단순한 데이 마케팅이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 가공품의 질적 향상을 축산업의 도약에 있다"며 "장흥 한우·한돈 육포는 저지방 고단백 부위를 원물 그대로 가공해 만든 우수한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곡성 백세미 50억 매출 달성 기원... 전통 손모내기 재현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곡성군이 지난 28일 곡성군 죽곡면에서 '백세미' 연 매출 50억원 달성을 위한 전통 손 모내기를 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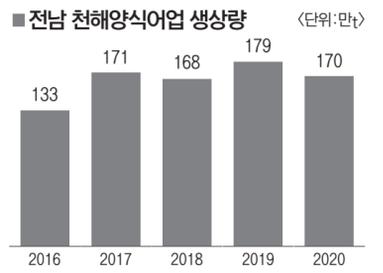
전남 최초 미국 아마존 입점 등 쾌거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곡성 특산물 쌀인 '백세미'의 올해 매출 목표를 50억원으로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곡성 백세미는 지난해 1000t 팔리며 매출이 전년보다 67% 오른 35억원을 기록했다. 백세미는 지난해에 이어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국회의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수차례 상을 받았고, 백세미 쌀로 만든 누룽지는 전남 최초로 미국 아마존에 입점돼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농촌진흥

청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0억을 지원받아 누룽지 생산 공장을 신축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석곡농협이 생산하는 백세미는 중생종 골든링크3호 국산 품종이다. 지역조원들과 인근 농가들이 240ha 면적에서 계약재배하고 있다. 단백질 함량 5.3% 이하, 도요식치미 값 85 이상, 아밀로스함량 12%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밥을 지은 뒤 24시간이 지나거나 식어도 구수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친환경 품평회에서 친환경 우수사례에 뽑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곡성군은 백세미 매출 50억원을 기원하기 위해 곡성군 죽곡면에서 백세미 쌀 전통 손모내기 시연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유근기 곡성군수, 정인균 곡성군의회의장,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 이성재 농협곡성군지부장, 한승준 석곡농협조합장, 김평환 영농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친환경 백세미 쌀로 잊혀져 가는 전통 손모내기를 재현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농협은 안전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청정 해역 전남... 천해양식 생산량 전국 74%

다시마류 38.8%·미역류 28.3%



청정 해역을 지닌 전남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이 전국의 7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천해양식 생산량의 40% 가량은 다시마류가 차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바다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최근 발표한 '2020년 호남·제주지역 주요 양식품종 현황'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170만547t으로, 전국 11개 시도 생산량(231만t)의 73.7%를 차지했다. 전남에 이어서는 경남이 16.4% 비중을 차지했고, 충남(2.8%), 전북(2.4%), 부산(1.6%), 경기(1.3%), 제주(1.1%)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지난 2016년 133만t에서 이듬해 171만t으로 28.2%나 급증한 뒤, 2018년 168만t, 2019년 179만t, 2020년 170만t 등을 나타내고 있다. 천해양식어업은 해수면(바다)이나 육상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 바닷물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을 말하며 어류·갑각류·패류·해

조류 등을 주로 생산한다. 지난해 생산량을 품종별로 보면 다시마가 전년보다 1만6271t(2.5%) 증가한 66만366t 생산되며, 전남 천해양식 생산량의 38.8% 비중을 차지했다. 미역류(48만t)가 28.3% 비중으로 뒤를 이었고, 김류(23.2%), 굴류(1.9%), 톳(1.6%), 홍합류(1.3%), 전복(1.2%), 넙치류(1.1%), 파래류(0.5%), 청각·조피불락·새꼬막(각 0.4%), 흰다리새우(0.3%), 개꼬시래기(0.2%), 매생이(0.1%) 등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명품 지산딸기' 광주 어린이들 수확 체험

광주 어린이 100여 명이 '명품 지산딸기' 수확 체험을 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북광주농협, 건국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00여 명과 '어린이 딸기체험활동'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지산딸기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고 자동화·기계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참가 어린이들은 직접 딸기를 따보며 농업·농촌

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날 행사가 벌어진 농가는 지난해 7월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은 장규남(52)씨가 운영하고 있다. 장씨는 30년 간 성실함과 도전정신으로 우수 품종인 죽향딸기를 주 품종으로 생산해왔다. 구상봉 조합장은 "앞으로도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시행사, 대표 김양덕  
▶ H. 010-2928-0202